

규제개혁회의 농업개혁안을 발표

- 지역 농협에 자립 촉구 -

■ 규제개혁회의 농업 개혁안 공개

- 지난 5월 14일, 정부의 규제개혁회의의 실무 그룹은 농업 개혁안을 정리하여 700의 지역 농협을 통합하는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 (JA전중)가 경영지도하는 체제를 종료시키고 각 농협이 자립하여 특색이 있는 농작물을 재배 할 수 있도록 추진
- 농작물의 판매를 담당하는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(JA전농)은 주식회사 전환하고 유통 효율화를 촉진. 또한 민간기업 참여를 장려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.
- 향후 일본 농림수산성 등과의 본격적인 세부조정에 들어가지만, 결국 JA그룹의 해체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방의 농업지역에 기반이 있는 자민당의 반발도 예상되어 조정은 난항 전망

■ 농협, 농업생산법인, 농업위원회의 개혁안 세 가지 초점

< 농협 >

- 농협의 전국 조직에 해당하는 JA전중은 농협법으로 지역 농협을 지도하는 권한이 인정되고 있으나, 각 지역별로 장점이 있는 농산물이나 판로는 다르기 때문에 JA전중의 획일적인 경영 지도를 없애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업을 육성토록 함
- 각지의 농협에서 농산물을 모아 판매하는 JA전농은 주식회사화하여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여, 제조 및 소매업과의 연계 및 수출 연계의 효율화를 도모

< 농업생산법인 >

- 농산물의 생산·가공·판매를 하는 법인이며 현재까지의 제도는 민간기업의 출자를 의결권 기준 25%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법인의 규모를 확대하기 어려움
- 개혁안은 민간 기업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50% 미만까지 올려 농업의 대규모화 및 종사자의 증가를 도모

< 농업위원회 >

- 농지의 매매를 허용하는 권한을 가지며 현재는 각 시·읍·면에 있으나 통합 및 축소
- 또한 위원의 선정 방법도 농가의 투표 방식으로부터 시장·촌장 등에 의한 임명으로 전환, 지식인과 농민 이외의 사람이 농업위원회에 들어가기 용이하게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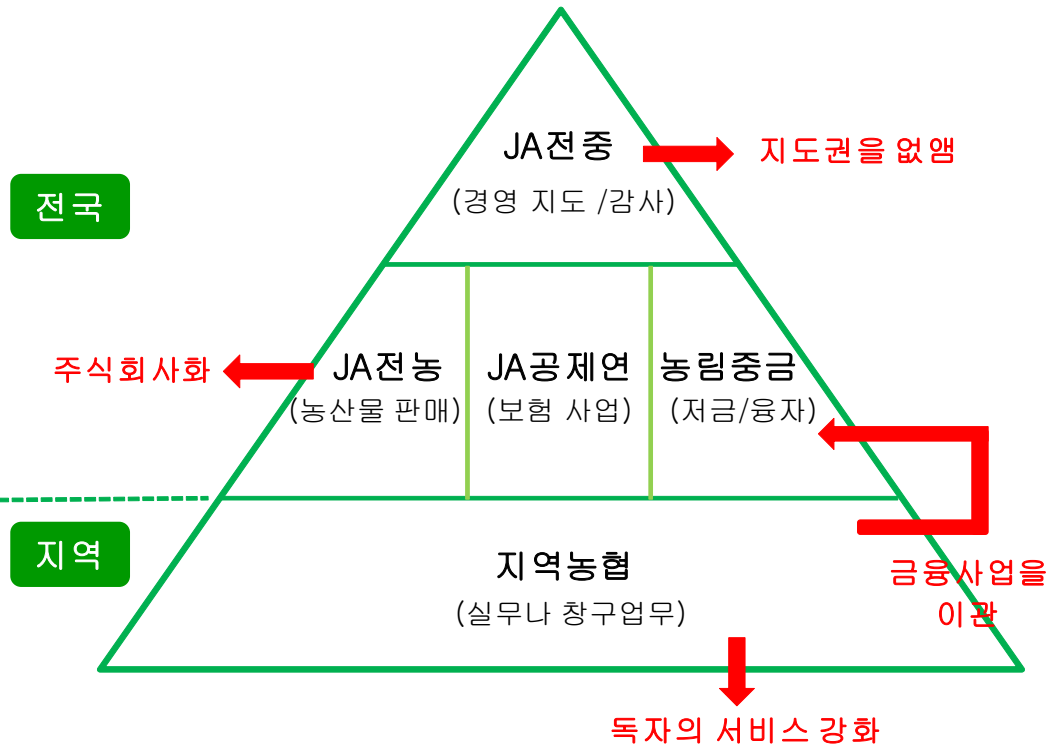
■ 시사점

- 농협은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써 JA전중은 현재까지 농민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결과를 보면 농가와 농업의 보호에 치우쳐 경쟁력이 있는 농가·농업 육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
- 호주와 EPA 합의 나 TPP 등 무역 자유화를 눈앞에 국내 농업의 강화는 시급한 과제이며 지역 농협의 활성화를 위한 개혁안은 획기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음
- 아베수상도 19일 정부의 산업경쟁력회의에서 농협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, 본 개혁안에 동의하는 의사를 나타냈으며 향후 농협은 일본의 농업강화를 위한 새로운 역할을 요구 되나 농업계에서 큰 조직인 만큼 반대 세력도 많은 것으로 예상되어 개혁은 순조롭지 않을 전망

※ 자료관련 문의 : 도쿄 aT 센터 혼마히로미(81-3-5367-6671)

규제개혁회의가 제시한 농업개혁안

【농협】 농구의 매입이나 농산물 판매의 공동조직



【농업생산법인】 농산물의 생산/가공/판매를 맡은 법인

과제

기업의 출자비율이 제한되어
기업 산입이 진행되지 않음



개선안

출자비율을 25%이하로부터
50%미만에 올림

【농업위원회】 각 시/읍/면에서 농지 매매 허용권을 가짐

농가의 호선으로 위원을 결정
하므로 기업산입을 경원



시/읍/면장이 위원을 뽑아
외부인재를 등용